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4 Issue | Vol. 6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잠재적인 물류 성장 시장으로 평가 —page 1-2
- 필리핀 경제구역청, 8월 첫 주에 92억 4천만 페소 규모의 투자 승인 —page 2
- 전기 요금 인하 정책 검토 중 — page 3
- 마닐라와 서울, '전략적' 관계 및 FTA 협정 모색 — page 3-4
- 올해 필리핀 성장률 6%로 예상 — page 4-5
- 5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4억 9천 8백만 달러 도달 — page 5-6
- 분석가들: 필리핀 성장 주로 기저 효과 때문 — page 6-7

필리핀, 잠재적인 물류 성장 시장으로 평가

August 11,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미국의 공급망 서비스 회사 C.H. 로빈슨(C.H. Robinson)은 국제 무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확장하려는 물류 회사들에게 필리핀이 잠재적인 성장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C.H. 로빈슨의 동남아시아 부사장인 스티븐 리(Stephen Ly)는 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이 산업에서 여전히 활기찬 성장 시장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무역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물류 산업은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1.16조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리 씨는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C.H. 로빈슨과 같은 물류 회사가 운영을 확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H. 로빈슨은 최근 동남아시아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C.H. 로빈슨은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전략적 위치로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고객 기반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리 씨는 말했습니다.



BW FILE PHOTO

"미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로 인해 필리핀은 지역 및 국제 무역의 이상적인 허브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리 씨는 무역 증가 외에도 전통적인 무역 경로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집중되면서 필리핀이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과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점점 더 생산 기반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조 허브로서의 매력도 높입니다. 그 결과, 필리핀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물류 산업이 여전히 인프라 제한, 규제 장애물, 변동하는 운송 비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류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항구를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도로 네트워크는 혼잡하며, 섬 간 연결이 제한적이어서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물품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규제 장애물과 관료적 절차에 대해 그는 복잡한 세관 절차, 통일된 지역 규정의 부재, 번거로운 문서 요구 사항이 화물 통관을 지연시키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2]

필리핀, 잠재적인 물류 성장 시장으로 평가

[Cont. from page 1]

"이러한 비효율성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저해하고 물류 부문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 혼란으로 인한 변동성 높은 운송 비용이 물류 회사들이 직면한 장애물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통한 해상 운송 경로의 중단으로 인해 필리핀의 해상 운임이 15% 더 비싸졌으며, 이는 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11/613400/phl-seen-as-potential-logistics-growth-market/>

필리핀 경제구역청, 8월 첫 주에 92억 4천만 페소 규모의 투자 승인

August 10, 2024 | Alden M. Monzon @AldenMonzonINQ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BW FILE PHOTO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금요일 현재 8월에 92억 4천만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2억 6천4백78만 3천 달러의 수출을 창출하고 4,26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PEZA는 이 투자들이 8월 7일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더 많은 프로젝트가 평가 중이며 8월 27일에 예정된 또 다른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승인된 투자에는 24개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투자 촉진 기관은 전했습니다.

14개의 프로젝트는 수출 제조업에 속하고, 4개는 IT-BPM, 2개는 시설 개발, 1개는 국내 시장에 종사하며, 나머지 3개는 에코존 개발에 관련될 것입니다.

이 신규 투자 목록은 PEZA의 올해 승인 프로젝트 총수를 144개로, 투자 금액은 5천4백72억 페소에 달하며, 고용 창출 전망은 2만9천524개 일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PEZA의 테레스 팡가(Tereso Panga) 총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4%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및 확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 잠재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나타냅니다."라고 팡가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지역 내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우리의 선제적 노력은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공을 위한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PEZA는 올해 최소 2천억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PEZA가 승인한 투자가 1천7백57억 페소에 달하며, 2022년의 1천4백7억 페소와 비교해 24.9% 증가했습니다.

PEZA의 승인 투자액은 2021년에 6천9백30억 페소, 2020년에 9천5백3억 페소, 2019년에 1천1백75억 페소, 2018년에 1천4백2억 페소였습니다.

PEZA 경제구역에 등록된 투자는 위치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에는 4년에서 7년의 소득세 면제와 5%의 특별 법인세율 또는 10년 동안의 세금 공제 강화가 포함됩니다.

한편, 국내 시장 중심의 기업은 4년에서 7년의 소득세 면제 또는 5년 동안의 세금 공제 강화가 제공됩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4235/peza-approves-p9-24b-worth-of-investments-in-first-week-of-aug>

전기 요금 인하 정책 검토 중

August 12,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는 전력 공급 계약(PSA)에 대한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요금' 정책이 전력 요금을 낮추고 적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력 공급 계약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요금' 정책에 따르면, 대기 중인 PSA가 있는 발전소는 여러 배급 유틸리티(DU) 및 전기 협동조합(EC)과의 경쟁 선택 과정(CSP)을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한 전력 요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ERC는 결정을 미루어온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요금' 정책을 시작했으며, 올해 중 대기 중인 PSA가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위해 3개월간의 관찰 기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기관은 이러한 조치가 지난주 예산 청문회에서 AKO BICOL 당대표 엘리잘디 코(Elizaldy Co)가 제안한 사항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코 의원은 ERC에 전력 공급 계약의 경쟁 선택 과정을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요금을 보장하기 위해 각 발전소 기술에 대한 가격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ERC 위원장 모나리사 디말란타(Monalisa Dimalanta)는 주말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요금 정책은 우리 적체의 대기 중인 PSA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접근 방식으로, 많은 PSA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전소의 비용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기준 요금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기준 요금을 사용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대기 중인 여러 DU와의 PSA에서의 요금과 비교하고, 인플레이션 및 유사 지표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예상 날짜의 차이를 반영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말란타는 "이로 인해 동일한 발전소의 PSA에서 요금이 균일해지며, 인플레이션 조정을 제외하고 CSP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위원회가 PSA 승인을 위해 채택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RC는 코 의원이 제안한 가격 벤치마킹이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요금' 정책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말란타는 "(코 의원이) 글로벌 가격을 바탕으로 한 지난 해의 기술별 또는 발전소 유형별 입찰 결과를 현재 연도의 CSP에 참여할 발전소 유형별 벤치마크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향후 조치로 검토할 것이며, 이전에 ERC에서 실시한 벤치마킹 연구를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CSP 규정에 따라 DU는 발전 회사로부터 최소 두 개의 적격 입찰을 받은 후에만 PSA를 체결할 수 있으며, 최소 두 번의 입찰 실패 후에만 다른 전력 공급자와 직접 협상이 가능합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olicy-to-lower-power-rates-eyed/](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olicy-to-lower-power-rates-eyed/)

마닐라와 서울, '전략적' 관계 및 FTA 협정 모색

August 13, 2024 | Malou Talosig-Bartolome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필리핀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와 한국 외교부 장관 조태울(Cho Tae-yul)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날로 장관과 조 장관은 마날로 장관의 서울 공식 방문 중 이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3일간의 공식 방문 동안 마날로 장관은 한국의 한덕수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또한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북한과 남한의 군대가 대면하고 있는 지역인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을 방문했습니다.

"마날로 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 조태울은 필리핀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선언문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가 성장하는 방향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는 마날로 장관 방문의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라고 외교부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Cont. page 4]

마닐라와 서울, '전략적' 관계 및 FTA 협정 모색

[Cont. from page 3]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분쟁 지점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이후 북한이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서울과 평양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의 공격성과 남중국해에서의 섬 건설로 인한 해양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닐라 장관은 그와 조 장관이 공동 선언문 초안을 올해 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한덕수 총리의 마닐라 방문 시기에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올해 마닐라와 서울 간의 외교 관계 75주년 기념과 일치합니다.

마닐라,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다

DMZ 공동경비구역 방문 중, 마닐라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서울의 노력을 지지하며 평양의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공화국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및 발사, 새로 획득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불법 군사 협력, 기타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며, 한반도 및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발전, 평화, 안정을 저해할 뿐입니다.”라고 마닐라 장관은 DMZ에서의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서울과 평양이 평화로운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한국 공화국과의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대화에 전념할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라고 마닐라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ASEAN 지역 포럼을 통한 평화로운 대화 촉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갈등은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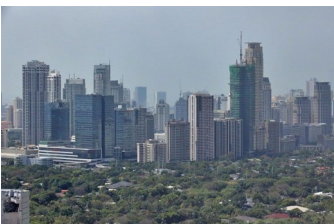
필리핀은 한국 전쟁 동안 7,420명의 군인을 파병했으며, 그 중 92명이 전사했습니다.

마닐라 장관은 이 필리핀 군인들의 용기와 용맹이 현재 75년을 맞이하는 오랜 관계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13/manila-seoul-seek-strategic-ties-fta/](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13/manila-seoul-seek-strategic-ties-fta/)

올해 필리핀 성장률 6%로 예상

August 13,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Photos show buildings in the Taguig City business district dwarfing houses on February 6, 2024.

STAR / Ernie Penaredondo

마닐라, 필리핀 — 글로벌 은행 대기업 시티(Citi)와 연구 기관 BMI Country Risk & Industry Research는 필리핀 경제가 올해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입니다.

보고서에서 시티의 필리핀 담당 경제학자 날린 추츠티탐(Nalin Chutchotitham)은 은행이 2분기 GDP 결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GDP 성장 전망을 기존 5.9%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소비는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한 고용과 향후 몇 달간 예상되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등 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경제는 2분기에 6.3%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분기의 4.3% 확장과 2024년 1분기의 수정된 5.8%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Cont. page 5]

올해 필리핀 성장률 6%로 예상

[Cont. from page 4]

추츠티탐은 성장률이 상반기 동안 6%를 기록하며 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2010-2019년 평균인 6.4%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녀는 강한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는 2분기에도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소비는 4.6%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GDP에 3.2%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시티는 2025년에도 6% 성장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추츠티탐은 미국 등 몇몇 선진 경제국의 경제 둔화로 인한 외부적 위험이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경제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송금 원천입니다.

한편, BMI는 필리핀 경제의 건강을 과대평가한 후, 연간 GDP 성장 전망을 기존의 6.2%에서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6.2% 성장 전망을 달성하려면 경제가 하반기에 약 6.4% 성장해야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연구 기관은 밝혔습니다.

“2분기의 6.3% 성장률은 경제 건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유리한 비교 기준에 의해 부풀려졌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출력이 단지 4.3% 성장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BMI는 분기별로 GDP가 0.5% 성장하여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장 둔화는 외부 부문이 약해지면서 발생했으며, 수출은 전체 성장에 2.4%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외부 수요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더욱 지원적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BMI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금리 인하가 국내 활동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티는 BSP가 목요일에 25bp 인하하고,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에는 총 75bp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츠티탐은 7월의 인플레이션이 4.4%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BSP가 8월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BSP는 6월에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있으며, 출력 격차가 정책 기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난 6월 BSP의 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6.50%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격적으로 450bp 인상한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가계 소비는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한 고용과 향후 몇 달간 예상되는 낮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등의 지지 요인이 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13/2377394/philippines-growth-seen-6-year>

5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4억 9천 9백만 달러 도달

August 13, 2024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5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4억 9천 9백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BSP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동안의 FDI 순유입은 지난해 5월 기록된 5억 4백만 달러에서 1.0% 감소했습니다.

FDI는 비거주 직접 투자자가 거주 기업에 대한 지분이 최소 10% 이상일 때의 투자와, 비거주 자회사나 관계사가 거주 직접 투자자에게 하는 투자 등을 포함합니다. [Cont. page 6]



Bangko Sentral ng Pilipinas (File photo)

5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4억 9천 9백만 달러 도달

[Cont. from page 5]

BSP는 FDI가 주식 자본, 이익 재투자, 차입금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SP에 따르면, 5월 순유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비거주자의 주식 자본 순투자가 2억 3천5백만 달러에서 1억 6천1백만 달러로 31.7%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감소는 이익 재투자를 제외한 자본에 해당합니다.

이익 재투자는 1억 1천만 달러에서 9천7백만 달러로 3.7%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의 채무 상품 순투자는 1억 6천9백만 달러에서 2억 4천2백만 달러로 43.4% 증가했습니다.

BSP는 이번 달의 주요 FDI 출처로 일본, 미국, 홍콩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부동산, 예술 및 오락 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동안 FDI 순유입은 35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15.8% 증가했습니다.

주요 출처 국가로는 영국, 일본, 미국이 있으며,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5월 FDI 순유입의 1% 감소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례 없는 직접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카포트는 최근 몇 달 동안 FDI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및 국내 금리로 인해 글로벌 및 국내 투자자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FDI가 둔화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 성장은 ASEAN 국가들 중 가장 빠른 편이며, 2023년 11월 이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완화된, 긍정적인 인구 통계와 낮은 장기 금리 덕분에 더 많은 FDI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말했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특히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내에 잘 유지될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 미국 및 국내 정책 금리의 인하가 FDI의 추가적인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1035>

분석가들: 필리핀 성장 주로 기저 효과 때문

August 13,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 Mirr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rise in this skyline of Metro Manila as residential houses are seen in foreground. (NONIE REYES)

경제의 2분기 성과는 주로 기저 효과에 의해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외국 분석가들은 연간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 하단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FitchSolutions 소속의 BMI는 성장 전망을 초기 추정치인 6.2%에서 6%로 하향 조정했으며, Citi Philippines는 이전 전망인 5.9%에서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목표는 올해 GDP 성장률을 6.7%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6.57.5%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6.5~8%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BMI는 "최근 성장 결과는 우리가 필리핀 경제의 건강을 과대 평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6.3% 성장 결과는 기저 효과로 인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7]

분석가들: 필리핀 성장 주로 기저 효과 때문*[Cont. from page 6]*

BMI는 필리핀 경제가 분기별로 0.5% 성장했으며,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로 “외부 부문의 부진한 성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은 전체 성장에 1.2 퍼센트 포인트(pp)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 수출의 2.4 퍼센트 포인트 기여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수입의 증가와 함께, 순수출은 0.8 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낮은 기저 효과에 의해 정부 지출이 이번 분기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높은 국내 차입 비용으로 인해 민간 소비 성장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Citi Philippines의 경제학자 나린 चुत्तिताम(Nalin Chutchotitham)은 2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빠른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चुत्तिताम은 가계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강력한 고용,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금리에 의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성장 전망을 6%로 유지하며,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해외 근로자의 송금 출처인 여러 선진 경제국—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외부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라고 चुत्तिताम은 덧붙였습니다.

BSP, 금리 인하 예정

BMI와 Citi는 최근 경제 성과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목요일에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Citi는 BSP가 이번 주에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10월과 12월에 각각 25 베이스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75 베이스 포인트의 누적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चुत्तिताम은 BSP가 4.4%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선택하고 주요 정책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고 지역 임금 인상이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은 “정책 기간 전체에 걸쳐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전 노트에서 실제 정책 금리가 역사적 추세를 상회해 왔으며, 따라서 BSP가 경제를 잠재적 성장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천천히 완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चुत्तिताम은 말했습니다.

앞서, 가계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와 정부 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행정부의 성장 목표 하단을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09/6-3-q2-growth-buoys-hope-for-full-year-goal/>)

필리핀 통계청(PSA)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GDP 성장률이 6.3%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 6.4%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PSA 데이터에 따르면,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2분기에 4.6% 성장했으며, 이는 1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입니다. PSA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4.6%의 성장률이 14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13/analysts-phl-growth-mainly-a-base-effect/>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